2024학년도 PROTOTYPE 모의고사 해설지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선택

<생윤 빠른 정답>

22434

31413

31111

44552

<윤사 빠른 정답>

31423

33523

14552

44322

생윤 해설

1. 윤리학의 분류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나'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나'가 비판하는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메타 윤리학이 아니라 실천 윤리학적 접근이 윤리학에서 필요하다고 비판할 것이다.

[선지 분석]
① 메타 윤리학은 도덕 명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중히 여긴다.

② 실천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에게 '도덕적 언어를 분석'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할 것이다.

③ 도덕 현상을 서술하기 위한 경험적인 탐구를 강조하는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이다.

> 기술 윤리학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규칙', '사회 전반의 여러 도덕적 제도와 관행',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의 인과 관계' 등을 가치 판단 없이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 기록한다.

④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원리의 '체계적인 정립'은 실천 윤리학이 아닌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강조할 내용이다.

> 이론 규범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연구하고 도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⑤ 도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기술 윤리학에서 강조할 내용이다.

2. 동양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석가모니, 을은 장자이다.

[선지 분석]
① 애욕은 무명의 원인 중 하나이다.
② 석가모니에 따르면 연기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만물의 무상함을 모르기에 영원불변한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게 된다.
③ 장자에 따르면 삶을 기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죽음을 슬퍼하지도 말아야 한다. 죽음관에서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 아님만 외웠다면 까다로웠을 선지이다.
④ 장자에 따르면 시비, 선악, 장단, 미추 등의 모든 인위적 구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구분은 모두 만물을 도(道)의 관점이 아니라 물(物)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기인한다.
⑤ 유불도 사상가중 순자를 제외하고 본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사상가는 없다.

3. 과학 기술 윤리

[제시문 설명]
뉴 미디어와 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가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의 형태로 변화되고, 인터넷 공간의 등장과 정보 통신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뉴 미디어의 순기능 설명
그러나 정보 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순기능에만 집중한다면 뉴 미디어가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해진다. 먼저 뉴 미디어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한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가 어디에서 최초로 발생했는지를 모호하게 만들어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고, 이는 대중의 윤리적 책임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뉴 미디어의 역기능 설명
따라서 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 뉴 미디어 이용자들의 책임의식 함양 요청

[선지 분석]
①,②,③,⑤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④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뉴미디어의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보 수용을 비판적으로 해야 하고, 정보 자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뉴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사회 구성원이 본인들의 역량을 재고(再考)하여 본인들의 역량을 파악한 뒤, 정보 자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 서양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가 아닌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ㄴ.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 행위하라고 주장했다.
ㄷ. 칸트의 보편화 정식에 대한 설명이다.
ㄹ. 해당 선지는 가언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의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일 뿐이다.

5. 생명 윤리

[제시문 설명]

갑 : 생식세포 치료 찬성 입장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전자 치료의 범위를 생식 생식 세포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 제시문 中

을 : 생식세포 치료 반대 입장

> 하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 제시문 中

[제시문 논점 분석]

논점	갑	을
논점1. 유전병 치료를 위한 과학적 연구를 확대해야 하는가?	O	O
논점2. 유전병 치료를 위한 생식세포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O	X
논점3.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치료되지 않는 병이 존재하는가?	O	O

갑, 을 모두 유전병 치료를 위한 과학적 연구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유전병 치료를 위한 생식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갑과 을이 의견이 다른 핵심 쟁점은 논점2 이며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6. 삶과 죽음의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하이데거이고 을은 플라톤이다.

[선지 분석]

① 하이데거에게 삶의 부재는 악(惡)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자기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삶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해야 한다. 즉 죽음으로서의 선구를 통해 죽음 앞에서 느꼈던 불안을 용기 있게 인수해 참된 실존을 실현해야 한다.

② 하이데거는 단순히 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하이데거는 언젠간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단순히 긴 삶이 아닌 자기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플라톤은 현실을 완벽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 이미지로 보았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저급한 육체는 인간 고유의 정신 기능인 영혼을 가둬두고 있으며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참된 진리의 세계(이데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플라톤은 사물에 대한 순수한 인식은 죽음 이후 영혼이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통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와 분리되어 감각과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존재만을 갈망할 때 최상의 사유를 할 수 있다.

⑤ 하이데거와 플라톤에게 모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두 사상가 모두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았다. 죽음을 고통으로 본 사상가는 불교 사상가인 석가모니이다.

7. 과학 기술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공포의 발견술을 주장한 요나스이다.
요나스가 주장한 '공포의 발견술'이란 현대 과학 기술이 자연환경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변화된 사태에 대해서 근거 있는 공포를 탐지하고, 그 공포로부터 일깨워진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알게 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 우리는 살인이 없었다면 아마 생명의 신성함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며,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적 명령이 이 신성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다면 진실의 가치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르며, 부자유가 없었다면 자유를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에 관한 지식은 모든 논리학이나 방법들과는 반대로 '무엇에 대해' 경악하는가에서 발원한다. 이 경악의 대상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지식에 선행하는 감정의 반항을 통해 이 대립에 의해 촉발되는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중략) 우리는 악(惡)의 인식이 선(善)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며 설득력 있고, 의견의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가식적이지 않다. (중략)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도덕 철학은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을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를 주장한 베이컨이다.

> 과학 기술 지상주의는 과학 기술의 유용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과학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과학 기술이 가져다줄 미래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가지게 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도덕적 숙고와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한다. [2022년도 EBS 연계 교재]

[선지 분석]

① 요나스가 베이컨에게 비판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베이컨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으로 과학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요나스는 현대의 과학 기술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경계하고 새로운 책임 윤리의 관점에서 과학 기술을 인류에게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②,③,④,⑤ 베이컨이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베이컨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 입장으로 과학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인 과학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8. 다문화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담당자는 귀국이 도입했던 문화 정책이 이민자들의 문화를 원주민의 편입하고자 한 문화 정책이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문화를 원주민들의 문화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한다. 이는 용광로 이론을 비판하고 샐러드 볼 이론을 시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지 분석]
① 문화들의 위계를 인정하며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 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이론은 국수대접 이론이다.

②, ③ 이민자들의 문화 정체성을 원주민의 문화로 동화시키는 것은 용광로 이론으로 샐러드 볼 이론이 아니다.

>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고 통합하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용광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를 거대한 용광로, 즉 주류 사회에 융합하여 편입시키려는 관점을 지닌다. 동화주의 입장은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 문화적 역동성이 파괴되고, 이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엔 생활과 윤리 교과서]

④ 서로 다른 문화를 대등하게 존중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샐러드 볼 이론으로 적절하다.

> 다문화 모형인 샐러드 볼 모형은 인종, 언어, 역사,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이주민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존중해 줌으로써 서로가 공존하면서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⑤ 이민자들의 문화들을 중심으로 문화를 구성해야한다는 입장은 샐러드 볼 이론이 아니다.

9. 분배 정의론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선지 분석]
ㄱ. 정의론의 유명한 구절이다. 롤스에 따르면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은 진리고,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
ㄴ. 롤스에 따르면 사유 재산의 차등 분배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예시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진이 있다.
ㄷ.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한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ㄹ.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개인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개인의 소유이며, 그로 인한 이익도 역시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10. 환경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싱어, 을은 레오폴드, 병은 테일러이다.

[선지 분석]
ㄱ.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에 따르면 종 차별주의는 단지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싱어는 투표권을 인간에게만 주는 등 차등 대우를 인정한다.
ㄴ. 싱어가 동의할 선지이다. 싱어에 따르면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이들을 위해 인간의 육식과 무분별한 자연 파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싱어와 테일러만의 입장이다. 싱어와 테일러는 모두 개체론자로서 자연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반면 레오폴드는 전일론자로서 자연 자체를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생명공동체로 보았다.
ㄹ. 세 사상가 모두 부정할 선지이다. 사유 능력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다.

11. 예술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도덕주의자 플라톤, 을은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도덕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가는 작품 속에 선의 이데아를 표현해야 하는데, 선의 이데아는 현실이 아닌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③ 칸트에 따르면 동물은 감성적인 존재이나,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미적 즐거움은 순수하게 감성적인 존재(동물)과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신)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④ 칸트에 따르면 도덕 판단과 미적 체험은 모두 자유가 전제되어야 성립가능하다.
⑤ 예술 윤리 사상가들의 공통점이다.

12. 사회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선지 분석]
ㄱ.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 계약에 참여한다.

ㄴ.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개인이 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는 것이다.
ㄷ. 로크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ㄹ. 홉스에 따르면 개인은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으며, 로크에 따르면 생명, 자유,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13. 평화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갈퉁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매우 힘들 뿐이다.
ㄴ. 갈퉁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는 차별도 폭력에 해당된다.
ㄷ. 갈퉁에 따르면 평화의 대상을 생태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ㄹ. 칸트는 방어전쟁을 인정한다.

14. 시민 불복종

[제시문 설명]
제시문 설명]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선지 분석]
ㄱ.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계약론적 관점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한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와 관련되어 정당화되는데, 이는 계약론적 관점에 해당된다.
ㄴ.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성과 성공 가능성을 모두 요구한다.
ㄷ.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자들의 처벌 감수는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한다.
ㄹ.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소수의 이익에 근거하지 않아도 허용될 수 있다.

15. 대중문화 윤리

[제시문 설명]
베블런의 소비윤리

[선지 분석]
ㄱ. 배블런의 소비 윤리에서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사회 구조의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비교, 허영심이 주 원인이 되어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가까워지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ㄴ. 과시 소비 성향은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함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
ㄷ. 과시 소비 성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계급에서 발생한다.
ㄹ. 베블런에 따르면 유한 계급은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려고 과시소비를 한다.

>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배블런, 유한 계급론]

16. 사회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 사상가는 마르크스이다.
[선지 분석]
①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이다.
②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이다.
③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이다.
④ 마르크스에 따르면 계급 투쟁의 역사는 고대 노예제부터 시작된다.
⑤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이다.

17. 사랑과 성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강연자는 에리히 프롬이다.
[선지 분석]
① 프롬은 사랑을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라고 보았다. 프롬에 따르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려 한다.

> 사랑의 행위는 '소유 양식으로 말해지는가, 존재 양식으로 말해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은 그를 소생시키며 그의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사랑은 소생과 생장을 낳는 과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으로 체험되는 사랑은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한ㄷ. 이런 종류의 사랑은 목을 조여서 마비시키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행위이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상 사랑의 부재를 은폐하려는 내용의 오용된 표현일 뿐이다.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② 프롬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한 헌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③ 프롬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관심과 배려, 책임감, 존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후천적인 노력이다.

④ 프롬에게 진정한 사랑은 '준다는 요소'.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의 요소로 이뤄져 있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⑤ 프롬은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외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8. 해외 원조

[제시문 설명]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선지 분석]
ㄱ. 싱어에 따르면 기아의 원인은 전 세계의 인구 과잉에 있지 않다. 세계의 총 식량 생산량은 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나, 기아의 원인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ㄴ.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의무에 따르면 어떠한 세금도 없다.
ㄷ.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의무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과 무관하다.
ㄹ. 싱어와 롤스 모두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의 의무는 보편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19. 형벌론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선지 분석]
① 칸트가 제기할만한 비판이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국가 원수에 대한 암살 시도는 미수로 그치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② 칸트가 간과하는 비판이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베카리아가 간과하는 비판이 아니다. 루소와 베카리아는 모두 사형제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권 양도 여부로 판단한다.
④ 루소가 간과하는 비판이 아니다. 루소에 따르면 형벌은 일반의지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⑤ 루소는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나, 칸트는 사형을 통해 살인자의 인격성을 존중해야한다고 보았다.

20. 평화 윤리

[제시문 설명]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일 추구하는 입장(가)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나)를 파악
[좌표축 분석]
X : 통일 이후 국제 정서의 흐름을 주목하는 정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국제 정서는 감성적인 것으로 통일 여부를 감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의 입장보다 통일 여부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의 입장이 더 큰 것이다.
Y :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을 고려하는 정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분단으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은 감성적인 것으로 통일 여부를 감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의 입장보다 통일 여부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의 입장이 더 큰 것이다.
Z : 통일 여부 결정에서의 유용성 계산을 걱정하는 정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유용성 계산은 이성적인 것으로 통일 여부를 감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나)의 입장보다 통일 여부를 이성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의 입장이 더 작은 것이다.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통적인 킬러 문제인 분배 정의와 환경 윤리는 조금 쉽게 냈으나, 그 외 킬러 소재(형벌, 해외원조, 사회계약론 등)을 어렵게 냈고, 준킬러나 비킬러 소재를 일부 어렵게 냈습니다.(직업, 동양, 예술 등) 작년 수능 오답률 1위가 학생들이 쉽게 생각했던 유불도 문항이였던 만큼 출제자인 저도 그런 경향을 일부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되는 점이나 추가 질문, 윤리 학습법이나 컨텐츠에 관한 질문 등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unkicetic 으로 Dm 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 페이지에서 윤리와 사상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 피고 봄 오면'입니다.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수험생분들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구성함으로써 실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쪼록 잘 풀어주세요.

출제진
Unkicetic(연세대 철학과), 꽃피면 봄오는(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윤리와 사상 해설

1. 장자

[제시문 설명]
가상 편지를 작성한 고대 동양 사상가는 도가 사상가 장자이다.

[선지 분석]
① 도가에서의 본성은 도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순박하고 자연스러운 속성을 지니며 이 속성들을 통해 외물에 구애됨이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가 입장에서는 본성을 교화할 이유가 없다. 또한 타고난 욕망에서의 사욕(私慾)의 제거에는 장자가 동의하겠으나, 타고난 욕망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욕망도 있기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②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 사상가는 고대 동양 사상가 석가모니이다.

③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고 상대적인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장자의 만물제동(萬物齊同)의 입장이다. 도(道)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에 우열은 없는 것이다.

④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사단을 **확충**하고자 한 사상가는 고대 동양 사상가 맹자이다. 맹자 입장에서 사단은 선천적인 것이기에 형성할 수 없으며 확충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이 되도록 수양해야 한다.

⑤ 팔정도(八正道)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양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고대 동양 사상가 석가모니이다.

2.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

[제시문 설명]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선지 분석]
ㄱ. 소크라테스는 쾌락을 주지 못하는 덕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덕은 쾌락을 주는 한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경험 그 자체에 앎이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에 관련된 추론속에 앎이 내재하는 것이다.

ㄷ.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참된 쾌락(아타락시아)를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식욕이 자연적 필수적 욕구라해서 무한정으로 먹다보면 쾌락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ㄹ.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다. 다만 우리가 일부 쾌락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쾌락을 충족시킨다면 향후 더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3. 아퀴나스와 스피노자

[제시문 설명]
갑은 아퀴나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선지 분석]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②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자연법이다.
③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유의지와 자유는 다른 개념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으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④ 스피노자는 목적인을 부정한다. 신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나, 신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맹자와 순자

[제시문 설명]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선지 분석]
ㄱ. 맹자의 구방심(求放心)에 관한 설명이다.

ㄴ. 순자에 따르면 예는 귀천과 차등의 기준점이다. 그리고 사회의 혼란은 예(禮)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없기에 일어난다.
ㄷ. 순자가 천인분이를 주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순자는 기우제를 인정했다.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봤자 당연히 비가 내리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순자는 기우제의 목적인 '비'보다 기우제의 형태에 주목했다. 순자에 따르면 기우제는 왕이 가뭄에 지친 백성들을 달래는 행사이기에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기우제를 긍정하였다. 솔직히 매우 지엽적인 선지이나, 그 사실을 알기에 소거법으로 풀리도록 구성하였다. 풀때는 어렵고 헷갈리더라도 사설 모의고사기에 해설지를 읽고 얻어가면 된다. 특히 윤사는 작년 수능의 노장 구분 문항 이후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존 평가원의 출제 방식만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ㄹ.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이다.

5. 흄과 데카르트

[제시문 설명]
갑은 흄, 을은 데카르트이다.

[선지 분석]
① 흄에 따르면 도덕적 선악의 감정은 판단자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판단된다. '적장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로우나,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교육청/ebs 제시문에서도 알 수 있다.
② 흄에 따르면 덕의 식별은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한 것이다.
③ 데카르트는 인간의 영혼와 육체를 서로 다른 실체로 보는 '실체이원론'을 주장했다. 스피노자와의 차이점이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이 실체이원론에서 한 발 나아가서 육체와 달리 정신은 불멸한다고 주장하였다. 육체가 소멸해도 정신은 불멸한다는 점에

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라는 것을 시사한다. 플라톤의 영혼불멸설과 유사하니 그냥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구나 정도만 알고 가자.

④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유를 멈추는 순간 존재의 확실성은 사라진다.

⑤ 데카르트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증명하였다.

6. 이황과 이이

[제시문 설명]

갑은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이황이고 을은 이통기국론을 주장한 이이이다.

[선지 분석]

① 이통기국론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 아닌 이이다. 이이가 이통기국을 주장했다고 이황이 부정했다는 근거는 없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기출에서 나온바 있다.
('이는 본연이며 통하고[通], 기는 재료이며 국한된다고[局] 본다' 이황X 2014수능)

② 이황은 이의 능동성과 작용성을 강조하여 이에 대해 직접 작위, 운동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고, 이의 작용인 이발(理發)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기호발'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 사단은 이에 근원하여 드러나는 순선한 감정이다. 하지만 기 역시 작용성을 가진다.

③ 이이에게 사단은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가려내 말한 것 이기에 칠정 가운데 인욕이 섞이지 않은 순선무악한 감정이다.

④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으로 보아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칠정 중 선한 부분만 가려낸 것이 사단으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칠포사(七包四)의 관계이다. 따라서 칠정의 선한 부분이 바로 사단이기에 칠정 중 선한 부분과 사단은 도덕적 위계가 같다.

⑤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는 도덕적 근원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선무악한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이자 도덕 법칙이다.

7. 정약용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한국 유교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선지 분석]

ㄱ. 정약용에게 사단은 네 가지의 선천적인 도덕적 감정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을 품부 받아 태어난다.

ㄴ, ㄷ. 정약용은 사단의 단이 실마리가 아닌 시작으로 보아 사단을 생활 속에서 확충함으로써 사덕을 형성해야한다고 보았다.

ㄹ. 정약용에게 인간의 본성은 일종의 경향성이다. 인간의 본성은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로 나뉘는데, 인간과 동물이 지닌 생리적 기호인 육체적 기호가 형구의 기호이고, 인간만이 지닌 기호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가 영지의 기호이다.

8. 공리주의

[제시문 설명]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선지 분석]

①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벤담에 따르면 쾌락 계산 기준 7가지 중 '순수성'이 있다.

②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행위 공리주의의 공통점이다.

③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벤담에 따르면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경건함의 가치도 계산할 수 있다.

④ 벤담이 간과할 비판이 아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는 보편적 도덕 원리이다.

⑤ 밀은 인간이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보았다. 반면에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9. 자유주의 공화주의

[제시문 설명]

갑은 자유주의 사상가인 벌린, 을은 공화주의 사상가인 페팃이다.

[선지 분석]

ㄱ.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소극적 자유이다. 벌린은 '~을 향하는 자유'로 표현되는 적극적 자유보다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다.

ㄴ. 벌린은 권력 기관의 부재를 주장한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다. 자유주의들은 한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의 간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공화주의 입장에서의 정치 참여는 덕성을 함양하고자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시민의 책무이며 이는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공화주의에서는 정치 참여를 통해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ㄹ.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 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한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이며 법치를 통해서만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10. 경제

[제시문 설명]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 병은 민주 사회주의자이다.

[선지 분석]

① 하이에크가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하이에크 또한 자유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할 것을 인정한다.

② 케인스와 민주 사회주의자가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스미스와 케인스는 둘 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민주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하이에크가 간과한 내용이 맞다. 하이에크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정부의 비대화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작은 정부를 이상적인 정부로 보았다. 작은 정부는 계획 경제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유와 경쟁을 통해 시장이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 사회주의자는 정부의 계획 경제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 불황과

실업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케인스가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케인스는 자유 방임주의의 시장의 효율적 자원 분배 기능 및 공정한 소득 분배 기능 실패로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정부의 규제 도입을 인정한다.
⑤ 민주 사회주의자가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민주 사회주의자는 효율적 자원 분배를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인정한다.

11. 칸트

[제시문 설명]
다음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선험적이기에 도덕 법칙은 인간이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ㄴ.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도덕 법칙에 위배될 수 없다. 보편화 가능하지만 인간 존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준칙을 반례로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인간 존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준칙은 애초에 보편화될 수 없다.
ㄷ. 칸트에 따르면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없으나, 어떠한 행위의 동기도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ㄹ.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가 행위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12. 인도 대승 불교

[제시문 설명]
갑은 유식 사상가 세친, 을은 중관 사상가 용수이다.
[선지 분석]
① 유식의 기본 입장이다.
② 세친에 따르면 요가 수행을 통해 식(분별적 마음)을 변화시켜 지(분별이 없는 마음)를 얻어야 한다.
③ 중관의 기본 입장이다.
④ 소승 불교의 입장이다. 용수는 일체의 모든 법도 자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제시문의 첫 줄에서 추론가능하다.
⑤ 중관 유식 모두 대승 불교에 속한다.

13. 사회계약론

[제시문 설명]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선지 분석]
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고 보았다. 이는 홉스와의 차이점이다. 홉스와 로크 둘 다 자연법을 주장했으나, 이들의 자연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홉스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는 불법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자연 상태에서는 보복이 자유롭다.
③ 루소에 따르면 정부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법의 지배하는 국가는 모두 공화국이다. 또한 루소는 절대 군주를 부정한 것이지, 군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④ 루소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도 개인의 선취권은 존재한다. 다만 이것이 사회 계약을 통해 재산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⑤ 로크와 루소의 공통점이다. 작년 ebs 해설에서도 언급하는 내용이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1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제시문 설명]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선지 분석]
①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자는 현실 세계에서도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
② 플라톤에 따르면 최악의 정치 체제는 민주정이 아닌 참주정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있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선은 사물도 가질 수 있다.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유덕한 행동에 대한 앎 없이는 덕을 실천할 수 없다고 보았다.

15. 스토아 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

[제시문 설명]
갑은 에픽테토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선지 분석]
① 스토아 학파의 기본 입장이다. 23수능에도 나온 내용이다.
② 스토아 학파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보았다.
③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초의 인간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④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선한 것은 신의 창조물이다.
⑤ 스토아 학파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입장이다.

16. 혜능과 지눌

[제시문 설명]
갑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선지 분석]
① 혜능에 따르면 불성을 깨달은 후에 점수할 필요는 없다.
② 혜능에 따르면 불성은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다.
③ 지눌에 따르면 돈오 이후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
④ 선종 사상가인 지눌에 따르면 선 수행을 위주로 하되, 교 수행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⑤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17. 실존주의

[제시문 설명]
갑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선지 분석]
① 사르트르는 무신론을 주장했다.
② 사르트르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등 모든 사회적 삶을 거부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사르트르는 실존적 자유를 토대로 한 행위, 실천을 의미하는 앙가주망(engagement)이란 직접 사회 문제에 참여, 즉 앙가제(engager)하여 조금씩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선택의 폭, 행위의 범위를 확징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사회나 정치 문제에 관계하고 참여하면

서 자유롭게 자신의 실존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보편자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④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의 인간도 신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불안을 실존 회복의 계기로 보는 것은 실존주의의 공통점이다.

18. 성리학과 양명학

[제시문 설명]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선지 분석]
ㄱ. 격물을 바로잡다로 해석한 것은 주희가 아니라 왕수인이다.
ㄴ. 왕수인에 따르면 사단은 성이 겉으로 드러난 덕이다.
ㄷ. 치지를 지식의 확충으로 해석한 것은 왕수인이 아니라 주희이다.
ㄹ. 주희는 악행의 원인이 기질의 차이라고 보았다.

19. 최제우와 최익현

[제시문 설명]
갑은 동학 사상가인 최제우이고 을은 위정척사파인 최익현이다.
[선지 분석]
① 최익현이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위정척사파는 성리학을 제외한 학문을 배척하며 유교적 가치로써 민족 주체성과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최제우의 입장에서 최익현이 간과한 내용이다. 동학에서는 인내천 시천주 즉 사람이 곧 하늘이며,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사인여천을 주장하는데, 이는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정척사파는 신분의 위계를 인정하고 성리학 외의 다른 학문을 배척하기에 최제우 입장에서 비판 가능하다.
③ 최제우가 간과한 내용이 아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天)을 모시고 있음을 주장하며 수심정기의 수양을 강조한다.
④ 최익현의 입장이 아니다. 위정척사파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배척하고자 하였다.
⑤ 최제우의 입장이 아니다. 동학 또한 위정척사파와 마찬가지로 서구 침략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며 서학을 배척하였다.

20. 롤스와 슘페터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 을은 슘페터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의 입장이 아니다. 롤스는 공론의 장에서 이성적 능력을 가진 시민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롤스의 입장이 맞다. 롤스는 정치적 선택은 시민들의 공적 심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슘페터의 입장이 아니다.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단지 인민이, 자신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슘페터의 입장이 아니다. 시민이 정치인을 수시로 간섭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⑤ 롤스의 입장은 맞으나 슘페터의 입장이 아니다.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인민 지배를 의미하지 않으며, 인민을 표를 얻는데 성공한 엘리트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윤보다 윤사는 난이도를 조금 높혔습니다. 작년 수능 당일날 윤사를 현장에서 마주한 수험생들의 기분을 최대한 재현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사는 원래 1컷이 고정 50이던 과목이였습니다. 심한 경우 2등급 블랭크가 생겨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나도는 과목이였죠 그러나 재작년부터 경향이 바뀌고 이젠 1컷이 45까지 내려가는 어려운 과목이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선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모르나,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게 나올 경우까지도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윤사는 어쩌면 3모 대비 모의고사에 안 어울릴 수 있으나, 과하게 냈습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이 있었고, 쌍윤러였기에 시중에 풀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는 윤사 수험생들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업인 생윤 출제가 바빠 윤사 출제를 많이 하고 있진 못하나, 앞으로 틈틈이 윤사 자료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과 기출을 학습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해설이기에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되는 점이나 추가 질문, 윤리 학습법이나 컨텐츠에 관한 질문 등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unkicetic 으로 Dm 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꽃 피고 봄 오면'입니다.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수험생분들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모의고사를 구성함으로써 실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쪼록 잘 풀어주세요.

출제진
Unkicetic(연세대 철학과), 꽃피고 봄오면(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철학과)

검토진
구은빈(성균관대 교육학과/유학동양학과)
김동우(성균관대 경영학과)
김민준(경북대 경영학과)
김상원(고려대 국어교육과)
나경빈(시립대 경영학과)
박진웅(교원대 윤리교육과)
유삼환(연세대 경영학과)
임재욱(교원대 윤리교육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